

2009년도 육계산업 전망

2009년도 동물약품업계 전망

바이엘코리아(주)
동물의약사업부 마케팅팀

어느 분야의 산업이든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에 대한 전망을 해보게 된다.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자 하는 아주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전망은 원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최근의 세계 경제 환경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더더구나 어렵게 되어 있다.

축산관련 업계 중 동물약품 업계는 우선적으로 축산업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축산업은 국제적 석유 공급 및 가격, 사료 곡물 가격, 중국·미국·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의 산업 동향 등 국제적 환경 및 외화환율, 국내 소비경제, 질병 발생 동향, 사양관리 상태 등 국내적 환경 영향도 동시에 받으며 복잡하고도 빠르게 변화된다.

우선 최근의 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데서 2009년도에 대한 전망을 해 보기로 한다.

2008년도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비명을 지르던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던 중국 산업 발전의 영향과 바이오 에너지로 사료 원료가가 급상승하여 이미 어려웠던 축산업계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서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출발된 국제 금융 경제의 어려움, 최고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한 원유가격, 석유가 급등은 사료원료가격을 급등시켰고 이는 축산업에 직격탄을 날리는 꼴이 되었다.

금융계의 어려움은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외화환율의 급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한지 연초에 전국을 뒤흔들어 놓은 촛불시위를 촉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허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영향은 현 시점에서서는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이다.

이것은 다행이 아니라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걱정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 축산업계에 더 심각한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이니까 말이다.

동물약품 시장은 크게 농장용, 사료공장용, 애완동물용 그리고 정부 납품용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동성이 크게 다르다. 여기에 가축 종류별로 그 시장의 경향이 서로 다르므로 전체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2008년 10월 말 한국동물약품협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동물약품 전체 시장은 2007년 10월말 대비 2%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시장의 66%를 차지하는 농장

2009년도 동물약품업계 전망

용은 4% 정도 감소했고, 전체시장의 26% 정도 차지하는 사료공장용은 18% 성장했다. 축산업과 거리가 있는 애완동물용은 7% 정도 성장하여 과히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전체 시장의 8% 정도에 지나지 않는 시장크기로 인해 동물약품 시장 성장에 대한 영향은 적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료공장용은 외화의 환율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인한 것이었고 실제로 사용된 약품의 사용량은 대폭 감소해서 사료가격을 올리고도 경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려웠던 사료업계와 마찬가지로였다.

농장용의 경우 4% 시장감소에 그친 것은 그나마 시장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정부납품용(소독제나 백신 등) 예산이 그대로 혹은 증액하여 집행된 덕분에 그 정도의 감소에서 그칠 수 있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양계산업용 보다 양돈산업용 동물약품 시장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은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많은 타격을 입은 한우산업은 이미 송아지 숫자가 늘어나 있었고 하루 아침에 송아지를 처분할 수 없는 관계로 지난해 사육을 계속했다. 그로 인하여 사료 총 생산량도 약간의 증가를 보였고 동물약품업계도 예상보다는 덜 감소했다.



2009년도 동물약품 시장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국내외적 경제 환경이다. 금융 위기에서 촉발된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축산 및 동물약품 시장은 그 회오리에 휩싸여 앞을 내다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안정되어 가는 환율은 사료가격 인하를 비롯하여 원자재 비용 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에서 조금 나은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료가격이 원료가 부담을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러화가 약화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닭고기나 돼지고기 수입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양계산업과 관련해서는 2008년에 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로 많은 농가가 다시 시작하

2009년도 육계산업 전망

2009년도 동물약품업계 전망

는 마음으로 새로이 닭을 입식했으므로 2009년도에는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항상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만성호흡기병, 뉴캐슬병, 감보로병, 콕시듐병, 가금티푸스병 등 양계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질병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에 대한 집중이 다른 질병을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벗어나 마음놓고 있을 때 다른 질병으로 피해를 본다면 결국 경제적 피해는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경제적 수익이기 때문이다.

양돈산업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도에 양돈산업을 괴롭혀 왔던 만성소모성질병(PMWS)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출시되어 많은 농가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이는 양돈업계에 희소식이지만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만성소모성 질병이 그 백신 하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다른 질병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숨 돌리는 것으로 그쳐야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2009년도부터는 배합사료첨가용 항생제 7가지가 사용금지 된다. 그로 인한 영향은 아직 판단하긴 어려우나 사료효율이나 추가적 질병 발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사양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동물약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우나 젃소와 관련된 시장도 최소한 5~15%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송아지 숫자가 줄고 전체적인 사육두수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달러화가 약화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바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번식 가능한 암소를 마구 도축해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 다시 한우 품귀 현상으로 한우 가격은 올라가고 그만큼 한우는 일반인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 입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도 동물약품업계 전망

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에 대한 집중이 다른 질병을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벗어나 마음놓고 있을 때 다른 질병으로 피해를 본다면 결국 경제적 피해는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경제적 수익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동물약품산업은 외화환율 진정 시에 사료공장용은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농장용은 지난해 수준보다 약간의 개선 상태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축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동물약품 산업도 지난해 연말의 감소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에 기대를 해본다.

해마다 동물약품 관련 정부 예산이 늘어나 일정 부분은 시장 규모를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시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산업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산업은 생산과 수익 창출에 근거를

하고 있고 정부 예산은 소비에만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은 자금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정부 예산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일 것이다.

산업계에서도 환경이 어려워 이미 정해진 떡(?)이라고 정부 납품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면 한 쪽에서는 국제 경제 환경을 들어 지난해 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는가 하면 다른 쪽 의견으로는 국내 축산물 생산 및 가격 변화 등을 들어 지난해 보다는 약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